

Morning Meeting Brief

THE GLOBAL / Global Daishin View

[Global Daishin View] 2026 년 10 월 1 주차

- G2 정상회담. 전술적 화해기간 재확인. 양국의 무역 및 투자 관련 성과 감안 시 긍정적 이벤트
- 코스트코, 4Q 매출, EPS 컨센서스 상회. 인비테이션 홈즈, 고금리 속 임차 수요 방어와 자사주 매입 확대
- 이번 주 해외 투자 포커스: [신흥국전략] Global X China Robotics and AI ETF, [미국주식] 코스트코, [글로벌리츠] 인비테이션 홈즈

글로벌전략 문남중, AI Engineer 조재운, 글로벌리츠 김다은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대외 불확실성 완화보다 강했던 금리 부담, KOSPI 6,900 선 이탈

- 추석 연휴 사이 높아진 금리 부담, 위험자산 선호 제한
- 미·이란 협상 재개와 미·중 합의, 대외 불확실성 완화
- AI 밸류체인 약세 속 태양광·건설·정유 강세, 업종별 차별화 지속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Initiation] 현대글로벌비스: PCTC 전성시대

- 중국향 완성차 물동량 증가로 동사의 비계열 물량 증가
- 글로벌 인프라 투자 회복으로 중장비 수출 수요 회복 예상
- 선복량 공급은 22년 대량 인도 이후 제한적, 운임은 중장기 개선 전망

이지니, jini.lee@daishin.com

[3Q26 Preview] LG 이노텍: 3Q 애플 효과는 존재, 다만 환율 부담이 가중

- 3Q26 영업이익은 1,496억원(-26.6% yoy)으로 컨센서스대비 하회 추정
- 원달러 환율 하락이 수익성에 부담 요인. 믹스 효과의 희석화
- 2026년 / 2027년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 전망은 유효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3Q26 Preview] LG 전자: 로봇/AI로 변화는 필수, 투자 시각도 긍정적으로 전환

- 3Q26 영업이익은 0.94조원(36.7% yoy)으로 컨센서스 하회 추정
- HS(가전), VS(공조)는 믹스 효과로 수익성은 예상 상회 추정
- AI/데이터센터향 공조 관련한 수주 확대, 로봇 사업의 가시화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3Q26 Preview] 삼성전기: 이제 본격화, 이익의 상향!

- 3Q26 영업이익은 6,606억원(50% qoq)으로 컨센서스 상회할 전망
- FC BGA, MLCC에서 AI항 매출 증가 및 믹스 효과 확대
- FC BGA, MLCC는 고부가에 집중, 범용 제품 생산 중단 및 가격 인상 전망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THE GLOBAL

Global Daishin View

글로벌전략 문남중
AI Engineer 조재운
글로벌리츠 김다은

2026년 10월 1주차

- G2정상회담. 전술적 화해기간 재확인. 양국 무역 및 투자 성과 감안 시 긍정적
- 코스트코, 4Q 컨센서스 상회. 인비테이션 홈즈, 고금리 속 임차 수요 방어와 자사주 매입
- 주식 포커스: Global X China Robotics and AI ETF, 코스트코, 인비테이션 홈즈

[글로벌전략] G2정상회담. 전술적 화해기간 재확인. 양국의 무역 및 투자 관련 성과 감안 시, 긍정적 이벤트

G2 정상회담 결과, 내년 1월 10일까지 무역 휴전 2개월 연장. 양국은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성 품목 대상 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권고안 합의. 미국은 농산물, 수산물, 목재, 화장품, 의료기기 등 대중 수출 장벽 완화. 중국은 소형 가전, 완구, 카시트 등 소비재의 대미 수출 여건 개선. 또한 중국은 미국산 석탄을 27~28년에 걸쳐 매년 최소 1,000만 톤씩 수입키로 결정. 양국간 전술적 화해기간이 재확인되고 28일 백악관의 팩트시트 공개는 Risk-On을 뒷받침하는 이벤트가 될 것

[신흥국전략] 中, 시진핑 방미 전 자국 기업에 'RTX 프로 5500' 구매 계획 보고 지시. 일부 기업, 구매 승인 방침 통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4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국 국민 방문을 앞두고 자국 기업에 RTX 프로 5500 칩 구매 계획과 사용 용도를 보고하라고 지시. 바이트댄스는 약 100만개 주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엔비디아는 12월 말부터 분기당 약 50만 대의 칩을 출하할 계획, 고객사에 이달 30일까지 주문을 완료해야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안내. 중국 정부의 엔비디아 칩 구매 방침 변화는 자국 기술 기업들이 직면한 연산 능력(컴퓨팅 파워)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 동시에 엔비디아 중국 사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전망

[미국주식] 코스트코(COST): 4분기 매출 · EPS 컨센서스 상회. 영업레버리지 복원과 회비 성장 둔화

4분기 EPS 6.75달러, 매출 957억 달러로 컨센서스 상회, 관세 환급 0.15달러 포함. 매출총이익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판관비 절감으로 영업이익률을 개선, 비용관리가 마진 방어 주도. 주가는 예상이익의 39.7배로 5년 평균보다 낮아져 부담 완화. 순현금도 151억 달러로 확대. 회비 성장률 7.3%로 둔화, 비교매장매출 증가에 유가 영향 얼마나 컸는지 확인 필요

[글로벌리츠] 인비테이션 홈즈(INVH): 고금리 속 임차 수요 방어와 자사주 매입 확대

금리 상승은 리츠 주가에 부담이나 모기지 금리 상승은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으로도 작용 (8월 미국 구매 · 임차비용 격차는 월 1,066달러). 7~8월 점유율 96.4%, 갱신 임대료 +4.3%. 부채의 92%는 금리를 고정해 단기 이자부담 완충. 또한, 작년 12월 이후 자사주 7억 달러 매입 → 신규 자산보다 할인된 자사주 매입이 주당이익에 유리하다는 판단. 12MF P/FFO 13.5배로 3년 평균 17배 대비 약 20% 할인. 금리 부담은 상존하나 견조한 임차 수요와 자사주 매입은 주당가치 방어 요인

대외 불확실성 완화보다 강했던 금리 부담, KOSPI 6,900선 이탈

- 추석 연휴 사이 높아진 금리 부담, 위험자산 선호 제한
- 미·이란 협상 재개와 미·중 합의, 대외 불확실성 완화
- AI 밸류체인 약세 속 태양광·건설·정유 강세, 업종별 차별화 지속

추석 연휴 사이 높아진 금리 부담, 위험자산 선호 제한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 휴장으로 소화하지 못했던 주요 이벤트를 반영, 그중 미국 채 금리 급등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제한했고, 여타 긍정적 요인을 상쇄

미국채 2년물, 10년물, 30년물 금리는 각각 4.91%, 5.20%, 5.51% 수준까지 상승. 미국 9월 S&P Global 종합 PMI가 58.4p로 2021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견조한 경기 확장세를 시사. 여기에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물가가 목표를 향해 빠르게 둔화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며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 미국 5년물 국채 입찰도 부진하면서 금리 상승 압력을 확대

추가적으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와 안나 폴슨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의 매 파적 발언도 금리 상승 압력을 가중. 현재 CME FedWatch 기준 10월 FOMC 금리 인상 확률은 70.3%까지 상승

미·이란 협상 재개와 미·중 합의, 대외 불확실성 완화

미국·이란 간 협상 기대가 유가의 추가 상승을 제한. 22일(현지시간) 카타르 중재로 미국과 이란의 간접협상이 재개되며 관계 개선 기대가 형성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 제안을 거절하면서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되었으나, 27일(현지시간) 추가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는 완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기존 무역합의를 2개월 연장하고, 300억달러 규모 비민감 품목에 대한 우대관세 적용과 중국의 2027~2028년 미국산 석탄 수입 등에 합의. 다만 관세와 희토류, 첨단기술 규제 등 핵심 쟁점은 후속 협상으로 이연돼 과도한 낙관론은 제한. 이번 회담은 양국 간 무역갈등의 근본적 해소보다는 단기적인 갈등 재확대 우려를 낮췄다는 데 의미

AI 밸류체인 약세 속 태양광·건설·정유 강세, 업종별 차별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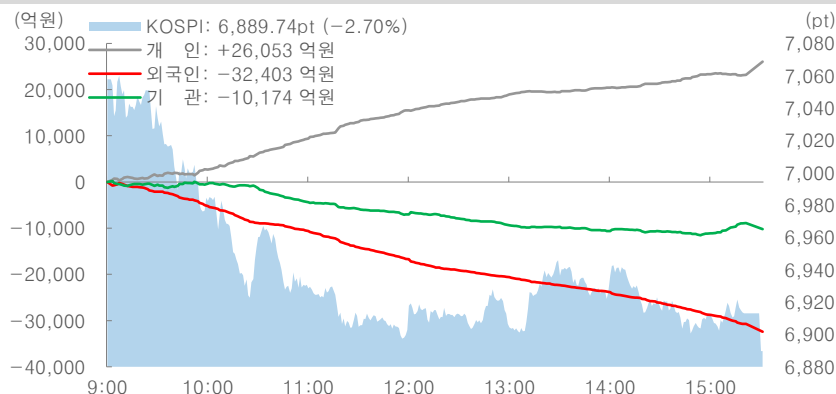
미국채 금리 부담과 오라클 데이터센터 지연 우려로 AI 밸류체인 약세. 반면 미국의 관세 규제로 태양광 모듈·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하고, 개별 주주 모멘텀이 부각되며 업종별 차별화 장세 지속

반도체: 삼성전자(-5.4%), SK하이닉스(-5.1%), SK스퀘어(-7.6%)

태양광: 한화솔루션(+14.2%), OCI홀딩스(+10.9%), HD현대에너지솔루션(+4.2%)

건설: 대우건설(+7.1%), 현대건설(+2.9%), 삼성E&A(+1.3%)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현대글로벌비스

(086280)

PCTC 전성시대

- 중국향 완성차 물동량 증가로 동사의 비계열 물량 증가
- 글로벌 인프라 투자 회복으로 중장비 수출 수요 회복 예상
- 선복량 공급은 22년 대량 인도 이후 제한적, 운임은 중장기 개선 전망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20,000원 신규 제시

목표주가는 26F EPS 22,815원에 글로벌 해운선사 평균 PER 14배를 적용. PCTC 운임 및 용선료 상승 효과가 본격 반영됨과 동시에 중국향 완성차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27년까지 중장기 운임 개선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동시에 동사의 선대 운영 합리화가 시너지를 일으켜 해운 부문 실적 성장을 견인하는 구간으로 판단

중국 완성차 비계열 물량과 H&H의 수요 증가는 동사의 PCTC 수혜

중국 자동차 산업은 해외시장을 타겟하며 완성차 수출량은 22년 약 311만대에서 25년 706만대로 확대됐으며, 1H26에는 이미 510만대(+65% YoY)를 기록. 특히 유럽과 중남미향 수출 비중이 확대되며 톤마일 증가 효과도 동반됨. 그에 따라 동사의 비계열 물량이 PCTC 탑라인 상방을 키울 것으로 전망. High&Heavy(건설기계 중장비) 수요 증가 역시 PCTC 물동량을 견인할 것. 글로벌 인프라 투자 회복과 핵심광물 개발 확대에 힘입어 건설기계 수출 성장 중. H&H는 대당 적재공간 점유율이 크기 때문에 승용차 대비 운임단가가 30% 높아 전체적인 매출과 마진의 상방을 높일 수 있음. 동사의 H&H 확보 물량은 24년 약 200만 CBM에서 현재 1년 계약 기준 약 300만 CBM으로 확대됨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요가 올리는 PCTC 운임

PCTC 선복 공급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을 전망. PCTC 전체 수주잔량은 현존 선복의 약 24% 수준에 불과해 공급 증가는 제한적. 그에 따라 PCTC 용선료는 재차 10만달러대를 향해 상승 중. 동사는 PCTC 중장기 운영 전략으로 2029년까지 고정선복 비중을 67%까지 늘림으로서 안정적 선대 확보 및 원가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28,407	29,566	34,760	38,274	40,455
영업이익	1,753	2,073	2,232	2,963	2,953
세전순이익	1,545	2,157	2,268	3,003	2,991
총당기순이익	1,099	1,735	1,712	2,267	2,258
지배지분순이익	1,094	1,734	1,711	2,266	2,257
EPS	14,585	23,117	22,815	30,210	30,093
PER	8.1	7.8	9.0	6.8	6.8
BPS	116,975	138,016	155,722	180,725	204,981
PBR	1.0	1.3	1.3	1.1	1.0
ROE	13.2	18.1	15.5	18.0	15.6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현대글로벌비스,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이지니

jini.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신규

6개월

목표주가

320,000

신규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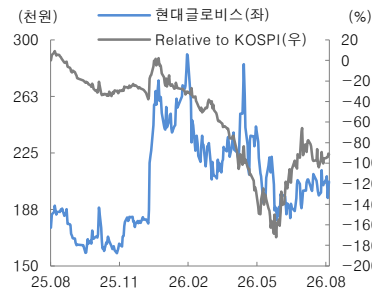
(26.09.28)

198,500

운송업종

KOSPI	6,889.74
시가총액	14,933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2%
자본금(보통주)	38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90,500원 / 158,4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592억원
외국인지분율	46.63%
주요주주	정의선 외 5인 29.36%
	Den Norske Amerikaline AS 11.00%

추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9	10.4	-14.0	18.2
상대수익률	-4.3	34.7	-32.1	-41.9



	2025	2026F
주당배당금(DPS) (원)	5,800	6,200
수익률(%)	3.2	3.1
총주주환원 (십억원)	1,734	1,711
수익률(%)	25.1	26.3

주: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추정. 추정치는 12M FWD 기준

LG이노텍 (01107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920,000

하향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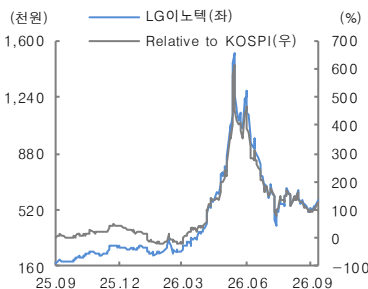
578,000

(26.09.28)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KOSPI	6889.74
시가총액	13,680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1%
자본금(보통주)	118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530,000원 / 183,6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905억원
외국인지분율	26.95%
주요주주	LG전자 외 1인 40.80% 국민연금공단 9.97%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5.4	-37.9	80.3	205.3
상대수익률	-6.8	-24.2	42.4	50.1



	2025	2026F
주당배당금(DPS) (원)	1,880	1,880
수익률(%)	0.7	0.3
총주주환원 (십억원)	-	-
수익률(%)	-	-

주: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추정 추정치는 12M FWD 기준

3Q 애플 효과는 존재, 다만 환율 부담이 가중

- 3Q26 영업이익은 1,496억원(-26.6% yoy)으로 컨센서스대비 하회 추정
- 원달러 환율 하락이 수익성에 부담 요인. 믹스 효과의 희석화
- 2026년 / 2027년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 전망은 유호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920,000원으로 하향

2026년 3Q 영업이익은 1,496억원(-26.6% yoy/-39.1% qoq)은 종전 추정 (3,450억원), 컨센서스(3,020억원)대비 하회할 전망. 매출은 6.32조원(+17.7% yoy/+14.3% qoq)으로 추정. 영업이익 하향은 원달러 환율(9/28 현재)이 2Q26대비 -10% 하락, 6월말대비 -12% 하락하면서 영업이익률 하향으로 연결. 특히 성수기 진입(8월~11월) 시점에서 환율하락(원달러)은 원자재 투입과 매출 인식의 시점 차이에서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

2026년, 2027년 주당순이익(EPS)을 각각 23.6%, 11.4%씩 하향. 목표주가는 920,000원(2027년 주당순이익(EPS) X 목표 P/E 26.1배(상단 평균의 밸류에이션, 반도체 기판의 프리미엄 부여)으로 하향. 투자의견은 매수(BUY) 유지. 2027년 애플의 아이폰 출시 전략 변화 및 반도체 기판의 매출 증가에 초점,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중확대 유지

2H26 영업이익은 -19.7%(yoy) 추정

1) 3Q26 매출은 6.3조원(+17.7% yoy/+14.3% qoq) / 영업이익은 1,496억원(-26.6% yoy/-39.1% qoq)으로 추정. 애플의 아이폰 18 프로/프로맥스향 생산, 추가로 카메라모듈에서 가변조리개를 채택하여 전년대비 평균공급단가가 상승, 광학 솔루션 매출은 5.3조원으로 18.1%(yoy) 증가 예상. 아이폰 18 일반/에어 모델의 생산 이월(2027년 1Q) 된 점을 감안하면 매출 성장은 긍정적으로 평가. 아이폰 듀오(신규 모델, 폴더블폰)의 매출은 4Q26에 반영. 그리고 2027년 상반기 매출은 아이폰 듀오 및 아이폰 18 일반/에어/저가 모델 생산으로 수익성 개선을 기대. 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유호

2) 기판 사업 중 FC BGA 중심으로 매출 성장이 2026년 하반기(7,082억원 7% hoh) 및 2027년(1.58조원 17% yoy)에 높을 전망. FC BGA는 종전에 PC향 칩셋에서 CPU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모바일향 반도체 기판(SIP, AIP) 등에 점유율 확대가 예상. 반도체 기판의 매출 성장은 전사적인 밸류에이션 확대 요인으로 작용

(단위: 십억원 %)

구분	3Q25	2026	직전추정	당사추정	3Q26(F)			4Q26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5,369	5,527	6,419	6,320	17.7	14.3	6,320	7,404	-2.7	17.2
영업이익	204	246	330	150	-26.6	-39.1	302	275	-15.4	83.6
순이익	128	170	242	99	-22.6	-41.4	203	197	44.6	97.8

자료: LG이노텍,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LG전자 (06657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70,000

상향

현재주가

214,500

(26.09.28)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로봇/AI로 변화는 필수, 투자 시각도 긍정적으로 전환

- 3Q26 영업이익은 0.94조원(36.7% yoy)으로 컨센서스 하회 추정
- HS(가전), VS(공조)는 믹스 효과로 수익성은 예상 상회 추정
- AI/데이터센터향 공조 관련한 수주 확대, 로봇 사업의 가시화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270,000원 상향(12.5%)

LG전자에 대한 투자 대상과 시각이 긍정적인 변화 중으로 판단. 전통적인 가전(TV 등 포함)에서 신성장으로 평가된 B2B인 AI, 데이터센터향 칠러 및 공조기의 수주 증가, 그리고 전장(VS) 사업의 수익성 개선에 주목. 2027년 ES 및 VS 사업에서 수익성 확대가 예상, 또한 로봇 사업의 매출이 가시화되면서 현 시점에서 비중확대가 필요. 투자의견은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270,000원(2026년 주당순자산(BPS) X 목표 P/B 1.9배(성장기 상단으로 변경))으로 상향. 투자포인트는

2026년 하반기 수익성 확대 / AI 데이터센터향 냉각솔루션 수주 증가

- 2026년 상반기, ES(공조) 사업에서 AI 및 데이터센터에서 냉각솔루션 관련 6천억원의 수주를 확보, 추가로 3Q 및 4Q에 약 2~3조원의 수주가 진행중으로 추정. 공급 및 생산 기간을 감안하면 2027년 2Q 이후에 고부가 중심의 매출 확대로 ES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개선 판단. 반복된 하반기의 비수기(영업이익 축소) 요인을 상쇄, 별도 기준으로 반복된 4Q의 영업적자의 순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 글로벌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과정에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수의 기업이 LG전자와 협력이 강화 중. LG전자는 경쟁사대비 경쟁 우위를 확보
- 칠러 중심의 냉각 장비, 그리고 관련된 소프트웨어, 전력 연계 솔루션을 보유
- 대용량의 열처리 분야에서 우위를 점한 수냉식 기술, 냉각 밸류체인(콜드플레이트-CDU-칠러-외부 열 배출 과정)을 보유
- LG그룹과 협력이 가능한 패키지 경쟁력도 강점. 최근 엔비디아로부터 2.5MW급 CDU(AI 데이터센터의 열관리를 위한 핵심 장비)에 대한 AI 팩토리 규격 승인을 획득한 점이 사업의 경쟁력을 증명
- 로봇 사업 확대에 주목. 엔비디아와 협력이 구체화 그리고 액추에이터의 내재화, 외부 매출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 LG전자가 보유한 로봇 관련된 양질의 데이터, 그리고 소프트웨어 및 핵심부품의 내재화를 통해서 B2C에서 B2B로 사업 영역을 확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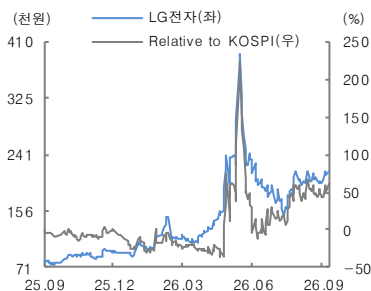
- VS(전장) 사업에서 고부가 매출 비중이 증가, 이는 헤드램프와 전자차 부품 분야에서 추가적 수익성 개선, 2026년 영업이익(VS)은 56.6%(yoy) 증가 예상. 매출 증가(11.9% yoy) 대비 높은 점을 감안하면 수익성 중심의 수주 결과가 본격적인 매출 반영 시기로 진입

3Q26 영업이익은 9,419억원으로 36.7%(yoy) 증가

2026년 3Q 영업이익은 9,419억원(36.7% yoy/-40.4% qoq)으로 추정, 연결 대상인 LG이노텍의 부진을 제외하면 별도기준의 영업이익은 7,923억원(65.7% yoy/-40.3% qoq) 예상. MS(TV) 사업의 흑자기조 유지, 가전(HS) 및 전장(VS)에서 믹스 효과가 지속, 원달러 하락 및 물류비 증가, 주요 원자재 가격 인상 요인을 감안하면 선전으로 추정. 3Q 매출은 24.7조원으로 13.2%(yoy), 3.9%(qoq)씩 증가 예상

KOSPI	6889.74
시가총액	36,200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54%
자본금(보통주)	818십억원
52주 최고/최저	392,500원 / 75,1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4,234억원
외국인지분율	29.89%
주요주주	LG 외 2 인 35.27% 국민연금공단 6.5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6.5	9.5	91.5	181.1
상대수익률	4.9	33.7	51.2	38.2



	2025	2026F
주당배당금(DPS) (원)	1,350	1,350
수익률(%)	1.5	0.6
종주주환원 (십억원)	-	-
수익률(%)	-	-

주: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추정 추정치는 12M FWD 기준

삼성전기 (00915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800,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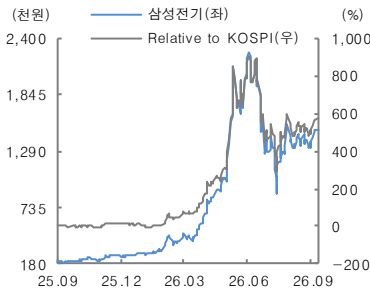
1,499,000

(26.09.28)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KOSPI	6889.74
시가총액	113,483십억원
시가총액비중	1.71%
자본금(보통주)	373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270,000원 / 191,7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3,694억원
외국인지분율	37.82%
주요주주	삼성전자 외 4인 23.77% 국민연금공단 9.9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5.5	-24.8	245.4	682.0
상대수익률	3.9	-8.2	172.7	284.3



	2025	2026F
주당배당금(DPS) (원)	2,350	2,350
수익률(%)	0.9	0.2
총주주환원 (십억원)	-	-
수익률(%)	-	-

주: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추정 추정치는 12M FWD 기준

이제 본격화, 이익의 상향!

- 3Q26 영업이익은 6,606억원(50% qoq)으로 컨센서스 상회할 전망
- FC BGA, MLCC에서 시향 매출 증가 및 믹스 효과 확대
- FC BGA, MLCC는 고부가에 집중, 범용 제품 생산 중단 및 가격 인상 전망

투자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2,800,000원 유지

예상대로 삼성전기의 2026년 3Q 영업이익은 대형 IT 기업 중 유일하게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점차 상향 중으로 판단. 종전에 추정(6,360억원)을 상회한 6,606억원(154% yoy/50% qoq)으로 예상. 컨센서스는 6,051억원으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 환율(원달러) 하락의 부담 요인에도 컨센서스 상회한 실적 상향은 AI 및 반도체 관련단 사업(FC BGA, MLCC)에서 믹스 효과가 확대, 높은 매출 증가가 기여한 것으로 분석. 또한 MLCC에서 수익성 낮은 범용 제품 중심으로 생산 중단, 일부 가격 상승이 동반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짐. 삼성전기의 본격적인 이익 상향 시점은 2026년 3Q, 추가로 2027년 추가적인 이익 상향의 요인이 부각된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 2026년/2027년 주당순이익(EPS)을 각각 3.0%, 1.1%씩 상향. 투자의견은 매수(BUY) 및 목표주가 2,800,000원(2027년~2028년 주당순이익(EPS)의 평균 상향, 밸류에이션 재평가 및 할증 반영)을 유지. 전기전자 업종내 최 선호주 유지

FC BGA : AI 및 데이터센터향 공급부족 심화, 2030년까지 생산 물량 확보

2026년 3Q, 매출(3,88조원)과 영업이익(6,606억원)은 각각 +12.1%(qoq), +50%(qoq)씩 증가로 추정. 매출대비 영업이익 증가가 더 높은 모습이 지속. 패키징 및 칩 사업이 풀 가동인 과정에서 AI 및 데이터센터향 매출(FC BGA, MLCC) 확대가 예상을 상회. FC BGA는 예상(4Q26말)대비 2026년 3Q 풀가동에 진입하였으며 대면적 및 고다층이 동반되면서 평균공급단가가 지속적으로 상향 중. 2027년 삼성전기 및 일본 이비덴에서 추가적인 공급증가가 제한적인 상황, 공급자의 우위를 바탕으로 AI 및 데이터센터향 FC BGA의 공급 부족은 심화 예상. 가격 인상 추세가 이어질 전망. 다수의 고객사 지원으로 베트남과 국내에서 생산능력 확대를 결정, 2030년 생산 물량을 이미 확보, 장기적인 호황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MLCC : 저수익 중심으로 생산 중단, 가격 인상이 진행 => 전반적인 가격 상승으로 진행 전망

MLCC 호황이 확대 중으로 판단. AI 및 데이터센터향 매출 및 비중 증가 속에 공급 능력의 한계(풀가동 및 무리타, 2개사의 공급은 제한적)로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시향 중심으로 추가 증설 및 대용량, 적층 수의 증가가 지속, IT/전장에서 생산 능력은 이전대비 감소하면서 점유율 1위인 무리타도 AI, 데이터센터, 고부가 중심의 생산 확대 차원에서 범용 및 저수익 제품군의 생산 중단을 결정. 삼성전기도 일부 동참하면서 IT 및 전장용에서 공급부족 이후에 가격 상승 가능성이 이전대비 높아진 것으로 분석. 2Q26에 무리타와 삼성전기가 유통 채널 대상으로 2번의 가격 인상을 추진한 점도 MLCC의 공급부족 상황, 선택적인 제품 생산(고부가 중심의 생산초점)에 포트폴리오 재편이 진행. MLCC가 IT, 전장에서 믹스 효과 확대, 평균공급단가 상승으로 영업이익률의 우상향이 진행. 추가적으로 가격인상이 진행되면 영업이익률의 추정치는 현재보다 상향될 가능성을 예상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